

Kenneth Mathews 박사, 창세기, 세션 15, 약속된 아들과 믿음의 시험, 창세기 20:1-25:18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5과, 약속의 아들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0:1-25:18.

창세기 20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15회에는 약속의 아들과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는 아들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기에서 우리 시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고 이 장을 빠르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 사라에 관해 거짓말을 한 12장을 생각나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교훈을 잘 배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영웅이나 악당만 있는 판지 차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점에서 그 특성에 충실합니다. 이것은 영웅이나 악당에 대한 그리스 묘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도 당신과 나와 같은 실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영웅적이고 숭고한 활동과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때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신앙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 다섯 성읍 중 하나인 그랄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 해 지역에서 이주하여 지중해 해안선과 약간 내륙을 따라 일련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남서쪽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다섯 곳 중 가장 주목할만한 곳은 가자지구 일 것이다. 물론 오늘 여러분은 가자지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랄은 그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20장을 시작하면 그는 다시 그랄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그는 이 여러 도시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인 것을 두려워했다고 설명합니다. 남의 아내를 훔치는 큰 죄를 누가 짓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남편을 암살하고 살해 한 다음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라는 이 일에 연루되어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남편이 살해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20장은 나머지 두 에피소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미 바로 앞에서 12장을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아내와 자매의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는 26장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장과 26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삭도 블레셋 그랄 왕 앞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피소드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로운 그릇이 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을 그릇 인도하는 두려운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것임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20장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18절에서 발견한 내용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방황하게 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해 그는 내 형제라고 말하십시오. 따라서 패턴을 제시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큰 관심이 이곳에 있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더 많은 설명과 변명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정말 내 동생이고, 비록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이고,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신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그가 남의 아내를 훔쳤고 그 결과는 그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과와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물론 사라가 하렘에 들어가 왕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로한 부부가 약속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분의 비범하고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12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6장의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에는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 일에 연루된 무죄한 당사자였으며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이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한 당신이 겪어야 할 형벌이라고 사실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임이니라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가 중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12장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6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서 족장 편에서 나라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며, 이 에피소드를 선택한 전체 목적은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아비멜렉의 회개로 인해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들이 다시 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종류의 개입이 있었고, 왕가의 임신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왕들은 아내와 자녀를 늘리는 일과 왕조의 강력한 가문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아내 사라가 현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가의 모든 사람은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약속한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21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경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을 비웃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거나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의심을 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사실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것은 행동이나 태도, 상황이나 다가오는 위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는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자신의 갈망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의 시작에 불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초기이자 가장 심오한 증거 중 하나는 기적적인 사라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21장은 약속된 아들 이삭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의심할 바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옵션과 기타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15장, 16장에는 종 엘르아자르가 있고, 사라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음을 배웁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웃는다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연극이다.

이삭, 웃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글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와 함께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배우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8절 이하에서 일어날 일을 확증해 줍니다.

탄생, 아니 오히려 이스마엘의 삶에 관해서는 이제 경쟁 관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보면 그 번역이 조롱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는 큰 잔치가 있는데, 이는 아이가 더 이상 모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약 3 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은 십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는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언어는 웃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놀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이삭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가 웃는다. 이 조롱을 번역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롱하는 것, 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볍고 농담하는 종류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조롱입니다. 어린 이삭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큰 축하의 맥락에서, 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씨족, 가족의 대부분이 이 축복을 기뻐할 때, 이 아이를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리고 취약합니다. 그리고 십대는 강하고 야심적입니다.

그러나 십대는 그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스마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아들이나 소년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그녀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 뭔가. 하인 하갈의 아들.

그러므로 이것은 장자로서의 지위가 감소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경쟁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쟁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서술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것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을 대표하는 적자, 이삭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은 또 율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의 모형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 때에 아들이 육신을 따라 났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난 아들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인들이 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박해에 참여한 것과 영적으로 같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형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의 추방은 과감한 조치이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넘어지고 온전한 실패를 겪은 불행한 결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결과는 16장과 25장에서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추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창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손.

보십시오, 당신이 아브라함과 올바른 친척이라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은 출산과 인구와 강한 나라를 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브라함,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스마엘을 돌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이 소년이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에서 나는 16장과 25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보거나 이스마엘을 보존하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12개 민족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추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하갈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이스마엘에게서 큰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 즉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 변경이 그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사라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읽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더 큰 틀에서, 특히 신학적으로 보면 21절에서 하갈이 그에게 애굽에서 아내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갈도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24장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큰 테라 클랜에 속한 누군가임에 틀림없어요. 테라 일족의 일원.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집트인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아내를 취함으로써,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 의도된 언약의 축복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대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브엘세바 조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사령관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명하고 있고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조약이 비준된 다음 양 떼에서 일곱 마리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거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맹세한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브엘세바는 어느 쪽으로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브엘세바의 우물이다. 브엘세바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네게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가 남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을 잠시 멈춰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브엘세바는 여전히 경작할 수 있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일곱 마리의 어린양을 가리키는 일곱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인 세바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리고 이것은 3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나게 하는 이중적인 예배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장의 마지막 구절, 실제로는 33절에서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여러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를 세웠는데, 이 경우에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식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엘 올람(EI Olam), 곧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식별하는 요점은 전능하신 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흠이 없고 영원히 범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구적인 방법으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냥 오랜만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브엘세바 조약이 체결된 후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시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12장과 22장은 언약 약속의 선포와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현되었음을 시험함으로써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영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의 성공과 일시적인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언약에 관해서도 중요합니다(15장). 동물을 나누는 의식이 있고, 밤에 환상에 나오는 화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두 동물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밤의 환상을 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아이를 낳고 땅을 소유하겠다는 나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언약의 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녀를 낳는 인간의 남성 기관에 있는 표가 왕조의 약속, 후손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부르심을 받은 큰 나라를 가진 큰 백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매 8일마다 히브리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자 언약 축복의 수혜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12장을 생각나게 하는 22장에서 사용된 언어를 보고 싶고, 그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을 듣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러므로 12장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네 땅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데 사용된 언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과 함께 내게 번제를 드리라. 자, 이 에피소드의 비애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외아들을 데려가라는 말에서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사실 그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점에서 유일한 아들이다.

그는 실현될 약속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삭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네가 사랑하는 이삭의 장래에 달려 있느니라. 자, 이것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사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담긴 묘사, 감정, 파토스, 그리고 그토록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든 것 덕분에 내러티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가증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 아이의 희생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하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교 종교의 가장 비열한 측면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예'라고 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험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시험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를 믿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낼 것입니다. 아니, 그건 시험의 목적이 아니다. 비록 언어는 이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발견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패키지의 일부이며 테스트 이해의 일부입니다. 테스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어가 패러다임의 상황, 즉 테스트의 패턴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의 인격과 경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의 믿음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은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스트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James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하, 그는 아브라함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결과를 아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속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시험이 시작되는 곳을 보십시오. 그는 칼이 뽑히기 전에 모리아로 가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칼이 찔리기 전에 그는 결정과 의도를 내려야 합니다. 결정은 앞으로 나아갈 때인데, 3일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의 모든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뜻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것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따라가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여기에 그의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옳과 그가 겪었던 시험이 생각납니다.

대적이 주님께 말하기를, 자기보다 먼저 온 천사인 사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옳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면 그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글쎄, 아브라함에 관한 한,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삭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신 이에게 불순종하느냐? 당신은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이 많고, 관대하며, 모든 지혜가 있고, 그의 약속에 신실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들의 진영을 지키게 될 자신의 종들에 대한 그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한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테스트 구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그 아이의 희생이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수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그런 다음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추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의심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자신의 논리를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음에서 되찾은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로 나갔다가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칼을 찔러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부활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지만, 18장에서 방문자 중 한 분인 주님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기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8절은 또한 이삭이 아마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의 아버지와 동행했고 그 희생에 동물이 참여했다고 이삭에게 말할 때 그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갖고 있고, 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있는데 동물은 어디에 있는 것 빼고는 다 여기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언어와 두 사람이 함께 계속한 언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맺은 이러한 개인적인 헌신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나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신뢰한 이유는 이삭이 10대, 어쩌면 청년이었음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라는 점과 어린아이의 언어를 말할 때 그를 지칭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을 이용하라.

이것이 5절의 번역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렸을 동안에 당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나 어린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늙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에 관해 증언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셔야 했고,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허락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묶인다는 이 단어는 유대 전통에서 중요합니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케다, AKEDAH, 아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인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유대인 친구가 있거나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읽을 때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입에 관해서는 15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다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보세요,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 가족의 번성에 관해 언어가 사용되었던 모든 초기 이야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들 앞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목숨을 앗아갈 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경우는 14장에서 롯이 납치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네 자손을 통해 어떻게 출산의 전망이 있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6절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주신 이천 계시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축복의 확실성을 제시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맹세를 통해 이것이 내 자신의 성실성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충절을 증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은 여기에 이삭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는 종들을 가리키는 그의 종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빠르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녀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매장지, 즉 가족의 매장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한 집단이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성경에서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헷 족속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고전 히타이트 국가, 즉 현대 터키는 1800년부터 120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가나안 지역, 즉 헷족속으로 와서 살았던 이민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헤브론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곳이 가족의 묘지를 구입한 곳이고 족장들에게 그들이 매장될 중요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옵니다.

그는 자신을 나그네, 거주자, 그러나 외국인으로 식별합니다. 그는 외국인입니다. 그는 낯선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의 후손이 이 땅을 다스리고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5절에 그에 대한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비공식적인 조약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판과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매장지가 있을 것이다. 9절에서는 막벨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굴과 밭의 주인은 그의 이름이 에브론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의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한 토론이나 물물교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공식적인 존경심은 . 그러다가 2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매장지로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소유한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기 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의 경우, 그 축복이 그를 통해 계속되려면 이삭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교적인 가나안 여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달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받을 가족 구성원, 즉 데와가 있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엔도가미(endogam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15장에 언급된 사람이 엘아자르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아람 땅 곧 아람 사람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람 나하리암은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티라 나홀이 살았던 곳입니다.

나홀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며 그곳에서 가족이 거주했던 하란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12절).

그리고 15절에서 그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가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좋은 정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가 있다는 증거는 짐승에게 물을 먹였던 우물가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소녀가 오는 여자를 보여주는지, 여자가 관대함의 정신을 보여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리브가가 도착하여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18절에서도 하인이 자기가 길어온 물에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님, 마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마음이 넓어지고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19절, 그에게 물을 먹인 후에 그의 짐승에게도 기꺼이 먹이려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행할 종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15절에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 있으며 이 장에서는 리브가가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설명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6절에서 또 다른 측면은 그녀의 처녀성과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계에서 한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 사이에 이런 종류의 연결이 이루어진 지 벌써 25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실을 오빠 라반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레베카와 라반, 라반은 우리가 다음에 알게 될 야곱의 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브두엘의 자녀인 아들과 딸입니다. 브두엘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우리는 종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연관지어 밝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많은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물론 그는 이삭과의 결혼에 대한 대가로 레베카를 그의 보살핌에 기꺼이 풀어줄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브두엘이고, 동생은 라반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고 다시 말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 야훼님, 내가 섬기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신실함, 하나님과의 교통, 그의 성장하는 믿음과 신뢰가 여기에 보입니다. 나는 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천사. 아브라함은 천사와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18장, 세 명의 방문자는 2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며, 당신의 여행을 성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장을 마무리하고 여자의 귀환을 마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그녀의 몫, 즉 빨리 떠나려는 그녀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은 반복입니다. 나는 절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옆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인의 동생의 손녀를 그의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브두엘은 50절에서 동의했습니다. 그 여자도 동의했어요, 레베카.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바칩니다. 이제 이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66절이 다시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독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라는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다시 결혼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다시 태어난 다양한 종족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맡겼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은 이스마엘을 위해 식량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이 되는 175년, 즉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베르사유에 함께 모여 그를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25장에는 이 짧은 창에서 이스마엘 후손으로 명명된 12지파 통치자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이며, 하나님과 매우 달라 보이는 일을 수행하는 지점까지 믿음으로 인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하나님과 같은 것은 그가 배운 성품이었습니다. 값. 내가 말하거니와 그는 주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통해 수단을 제공하시는 데 있어 일관되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꿈, 환상, 기도에 개입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주인과 같은 종인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중요성. 여기 두 사람은 각각의 상황, 즉 22장과 24장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믿음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흐름 속으로 데려가는 수단, 그분의 약속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방법 등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십니다. 실제 인간 경험의 틀에서, 역사적으로, 또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교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을 조종하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 삶의 패턴에 받아들이는 특권적인 부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야곱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5과, 약속의 아들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0:1-25:18.